

## 나인선의 「어린왕자」 작품을 평론한다

Review of the work of Na in-sun

나인선

대전과학기술대학교

Na in-sun

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

## 1. 작품 이미지



## 2. 작품 설명

작품명: 어린왕자(Le petit Prince)/나인선작/free size/  
컴퓨터그래픽/2002

지금은 유로화 통용으로 사용성의 가치는 사라졌지만 과거 프랑스지폐로서 50프랑에는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생뱃취베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시작했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. 지폐는 흔히 사람 손바닥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각형이라는 한정된 공간만이 주어질 뿐이지만 그 안에는 각 나라의 수많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. 위 작품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간 생뱃취베리와 그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를 추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추억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컴퓨터그래픽디자인이란 시각언어를 통해 재구성한 2002년에 발표된 작품이다.

## 3. 작품 평론

아름답기도 하고 때론 슬프기도 한 인간과 자연의 한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듯이 인간과 밀접한 관계인 과거로부터 현재, 또는 미래에도 계속 통용되어질 돈-지폐를 모티브로 삼아 그 안에 담겨진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한 생각을 컴퓨터그래픽디자인이란 시각언어를 통해 재구성하여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.

작가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폐(은행권)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작업을 벌여나갔다. 그는 세상의 모든 지폐를 탐미적으로 수집하고 재미있게 가공한다. 기존의 지폐가 레디메이드(Ready-made)가 되어 이를 차용한 작업이다. 지폐가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, 레디메이드로 활용된 사례인 것이다.

우리는 돈을 하나의 시각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액수, 용도 가치 등에만 관심을 가진다. 반면 작가는 그 돈을 욕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각언어로 살펴보고자 한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지폐를 이용한 시각이미지 작업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

지를 알려준다(박영택, 「나인선-지폐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작업」, 나인선 제3회 개인전 도록, 2004, 인용).